

# 캐나다 한인 여성회 소식지

##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Newsletter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으로,

캐나다 한인여성회는 개인과 가정이 캐나다에서 정착하는데 있어 당면하는 어려움을 잘 대처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기관입니다.

지난 24년 동안 여성회는 동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착과 가정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동포사회의 개발과 이익을 옹호하는 일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해 여성회는 20,000여건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수치는 그전 해에 비해서 배로 증가한 것으로써 동포사회에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적합한 서비스가 많이 필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회는 필요한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동포사회에 제공되어 더이상 우리의 서비스가 필요치 않을 만큼 동포사회가 건강해질 그 날을 고대합니다. 그 날은 정말로 기쁜 날이 되겠지요!

“아리랑 만찬”은 이러한 여성회의 임무와 서비스를 알리는 행사입니다. 아리랑 민요가 한국문화에 오래 구전되어 왔듯이 “아리랑”이라는 단어는 한국인의 끊이지 않는 생명력(resilience)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동포사회를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섬기는 지역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는 저희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큰 힘입니다.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박루시, 이게일

기금모금 위원장 및 캐나다 한인여성회 이사



### 2009 아리랑 기금모금 만찬에 초대합니다!

“성공적인 정착 &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일 시 : 2009년 2월 21일(토) 오후 6:30
- 장 소 : Sheraton Parkway Hotel  
(600 Highway 7 East, Richmond Hill)

☎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한인 여성회(416-340-1234)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차 례

1 면	아리랑 만찬 초청
2 면	여성회 소식
3~5 면	주요행사 및 프로그램
6 면	자원 봉사자의 소리
7 면	프로그램 이용자의 소리
8 면	Funders/ 여성회의 사명

## 여성회 소식

### ■2008 자원봉사자 감사의 날

2008년 12월18일 저녁 6시 한인여성회 2층에서 '자원봉사자 감사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한인여성회를 통해서 통역, 사무실 지원, 프로그램 관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25명이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서로 친목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인사말에서 하영리 한인여성회 사무장은 여성회가 작년보다 두 배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은 결과임을 말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날 행사를 통해 게임, 노래 부르기, 자원봉사 경험 소감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자원봉사자들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다. 각자의 봉사 경험을 나누는 순서를 통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받는 것이 많다는 소감을 피력했으며, 적극적인 커뮤니티 참여 및 자원봉사 정신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한 여성회의 감사의 뜻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주요행사 및 프로그램

### ■셀프헬프그룹 모임

셀프헬프 그룹은 가정의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서로 돕는 모임으로 매월 3째주 금요일에 다양한 주제로 모임을 갖고 있다. 10월에는 유방건강, 11월에는 스트레스 관리법, 12월에는 즐거운 연말 파티가 있었다.

### ■부모 모임

부모 모임은 자녀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보 교환과 부모교육 실례 연구들을 통해서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매월 3째주 월요일마다 있다. 이번 모임에서는 서로가 겪은 어려움을 나누며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대안들을 함께 모색하고, 캐나다 학교 및 교육정보를 알 수 있었다.

### ■행복한 가정 만들기 워크숍

자녀와의 대화법과 행복한 결혼생활에 관한 워크숍을 열어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 ■이민 여성을 위한 캐나다 가정법과 비지니스 창업 법률 정보 세미나

11월 13일 갤러리아 문화교실에서 Heydary Hamilton PC 소속Douglas Green 변호사와 이종범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캐나다의 가정법과 비지니스 창업과 관련한 법률 정보세미나를 열었다.



### ■H Mart 순회 서비스 - 성공적인 뿌리내림

노스욕 지역의 이민자들을 겨냥한 순회서비스가 자리매김을 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정기적인 정착 프로그램으로 사후관리를 통하여 이민자들이 이민국에 제출할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11월과 12월, 3회에 걸쳐 신청서 작성 대행서비스를 H Mart 세미나룸에서 실시하였다.

여성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및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회원(1년/평생)이나 기부자로 여성회의 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행사 및 프로그램

첫회부터 만원예약이 되었으며 2, 3 회 역시 하루종일 서비스 제공을 할 만큼 많은 이민자들이 서비스를 받았다. 3 회에 걸친 서비스를 통해 신청서 작성 도움을 받은 수혜자 수는 약 50명 정도 되었다.

서비스를 받는 이들에게 H Mart 의 주요 장점은 넓은 주차장과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이 Richmond Hill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영주권 카드갱신 및 시민권 신청을 위한 도움이 필요했었지만 적절한 곳을 찾지 못했던 이들에게 한인여성회가 제공하는 순회서비스는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순회서비스는 한인여성회와 서비스 이용자들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며, 이는 곧 우리의 서비스를 점차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최상으로 만드는 계기였다. 또한 순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서비스 이용자들의 감동도 매우 컸다. 순회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는 캐나다 한인여성회의 준비성과 결단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 ■정착 정보와 함께 하는 영어 교실

#### 10월 주제 <교사와 학부모 상담 요령>

<교사와 학부모 상담 요령> 이라는 주제는 학부모들의 요청에 맞춰 선택되었다.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교사와의 정규 인터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교사와의 상담을 위한 준비와 개별 상담 요청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학부모들은 실제 상담시간에 쓸 수 있는 영어 문장과 표현을 배우고 싶어 했다. 마침 캐나다 초등학교에서 10년 이상의 교사 경력을 갖고 있으며 한인 부모님들과 많은 상담 경험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매주 2시간씩 4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첫 시간은 28명의 학부모 참석자들이 각자가 겪은 학교 상담 경험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이 나눔의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다른 이들도 겪고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 크게 위안이 된 점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인여성회같은 전문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에 만족스러워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들은 교사와의 인터뷰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학교 인터뷰, 성적표와 관련된 영어 표현을 익힐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본다.

### ■뜨개질을 사랑하는 모임

정착을 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뜨개질을 사랑하는 모임'이 12월 부터 2009년 3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여성회 2층 세미나룸에서 진행되고 있다. 추운 겨울,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 친구, 이웃을 위하여 포근한 마음으로 뜨개질로 손수 준비한 선물을 준비하며 함께 정착경험과 정보 나눔을 목적으로 한다.

### ■크리스마스 디너를 위한 터키 & 햄 구이

12월 10일 리치몬드힐의 H마트 문화센터에서 음식으로 이해하는 캐나다 정착프로그램으로 '크리스마스 디너를 위한 터키 & 햄 구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위한 캐네디언 전통, 테이블 셋팅, 디너 준비를 위한 쇼핑 가이드, 디너를 위한 터키 와 햄 구이 요리 설명 및 시식이 있었다.

### ■소비자 권리 정보 세미나

새이민자를 위한 효과적인 불만신고 정보를 위하여 11월 6일, 갤러리아 슈퍼마켓 문화센터, 11월 19일 H마트 문화센터에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를 통하여 참석자들은 효과적인 불만신고 절차, 소비자 불만신고서 작성법, 소비자 불만신고 센터 정보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효과적인 소비자 불만신고를 위한 소비자권리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키우기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프로젝트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10월-12월 사이 7개 부모 그룹을 대상으로 워크숍이 실시되었다. 워크숍은 H마트 와 갤러리아 문화센터, 노스욕, 한인회, 강림교회에서 열렸으며 동료 부모지도자들의 워크숍 진행하였으며 온타리오 트릴리움 재단이 워크숍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였다.

여러분의 정착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은 원고를 여성회로 보내주시시오.

문의: 한인여성회 416-340-1234

## 주요행사 및 프로그램

### ■한인여성회 2008년 취업 프로그램

2008년 하반기는 미국의 경제 위기와 그 여파에 대한 걱정으로 시작된 시간이었다. 캐나다 전체적으로도 취업 시장의 경색을 논하는 언론의 보도가 앞다투어 나왔으며 한인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경제란을 걱정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런 경제적 위기에 더욱 큰 곤란을 겪는 그룹이 신규 이민자 그룹이 아닐까 싶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한인 이민자들의 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한인여성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사들을 지난 10월과 12월 사이에 제공하였다.

10월 21일 화요일에는 매달 진행되고 있는 Job Finding Club의 일환으로 “대형 매장 취업”을 위한 정보 세미나가 있었다. 샘스클럽에서 마케팅일을 하고 있는 토니 신씨를 모시고 대형 매장의 취업 방식, 근무 조건, 경험담 등을 들어보는 시간이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된 경제 활동을 꼽으라면 소규모 매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류 사회 대형 매장에서 좀 더 체계적인 직장생활을 구해보는 것도 한인 이민자들이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날 참석한 대부분의 한인 이민자들이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도 남아서 대형 매장 취업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고 몇몇분은 토니 신씨가 준비해 온 취업 지원서를 직접 써서 제출하기도 하였다.



11월 25일 화요일에는 역시 Job Finding Club 순서로 “캐나다식 취업, 캐나다식 네트워킹”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것이 캐나다식 취업 찾기의 핵심 사항인가를 파악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선시 되는 사항이 바로 캐나다식 네트워킹에 대한 인식이었으며, 두 시간 동안 한인여성회 취업 상담원의 강의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참석한 한인 이민자들은 캐나다 취업 구조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킹의 중요성, 그리고 네트워킹 만들기 요령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취업 행사가 있었다. 매달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 취업 준비 핵심 정보 설명회**, 두 달에 한 번씩 토론토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부 연계 취업 프로그램 설명회**, 기초 사무용 컴퓨터반 - **MS Office 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그룹 행사 외에 일대일로 제공되는 취업 가이드 상담, 이력서 작성, 취업 트레이닝 가이드 등의 개별 상담도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개별상담을 원하는 한인 이민자들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인여성회 취업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하시거나, 취업 세미나의 방향, 한인여성회의 프로그램 개선과 개발을 위한 좋은 정보와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여성회 취업 프로그램의 연락처는 취업 상담원 오병천 (전화: 416-340-1234, 이메일: [employment@kcwa.net](mailto:employment@kcwa.net)) 입니다.

## 주요행사 및 프로그램

### ■한인여성회 프로젝트 동료 지도자들의 모임

지난 12월 12일 한인 여성회 프로젝트 동료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었다.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키우기, 유방 건강 증진, 가정 폭력 예방등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한인 커뮤니티에서 자원 봉사과 워크숍 진행등 한인 커뮤니티의 역량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한 동료 지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첫번째 모임이었다.

20시간의 훈련을 이수한 동료지도자들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웃, 친구, 동료들을 위해 정확한 지식과 바른 정보를 전달하며 자녀성교육, 한인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 건강한 가정을 위해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총 36명의 동료 지도자가 참석한 이날 행사는 하영리 사무장의 격려사로 시작하여 프로젝트 소개, 워크숍 진행과 봉사활동을 하며 느낀점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룹별 토의를 통해 동료 지도자들간 유대 관계 강화 및 실천 방법,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Pot Luck 으로 준비된 점심 시간은 그동안 얻은 정보 교환과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의 절정이었다.

참석한 동료 지도자들은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한인 커뮤니티 역량 증진을 위해 힘써 일하는 동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며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하였다.

“배운것을 나누면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다”, “생각과 추구하는 바가 같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 행복했다” “나도 많이 배웠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로 마무리를 한 이날 행사는 1년을 정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12월을 보다 충만한 시간으로 마감하게 하였다.

### ■한인 여성회의 핑크 새순 Run for the Cure 참가

2008년 10월 5일 (일요일) 캐나다 유방암 재단에서 주최하는 “CIBC Run for the Cure” 행사에 여성회의 핑크새순팀이 참가 하였다. 이번 행사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유방암 관련 기관인 Canadian Breast Cancer Foundation (캐나다 유방암 재단)에서 유방암관련 연구와 프로그램을 위한 모금을 위한 것이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혹은 아주 적은 수의 남성들도 유방암에 걸리고 있는 실정이고, 비영리 기관인 CBCF에서는 유방암 없는 미래를 위한 의학 연구와 유방암 관련 교육 및 조기발견과 치료,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여성회의 유방암 환우 지원 그룹인 핑크 새순에서는 “항상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한국인이 이 사회에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자.” 라는 취지에서 2008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Rummage Sale 등을 통해서 기부금을 마련하여 캐나다 유방암 재단에 기부하였고, 행사 당일에는 가족들도 함께 참여 하여 유방암이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더 나아가서 사회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좋은 기회였다.

## 자원 봉사자의 글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3기 동료부모지도자 김 영숙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나는 유학생 엄마로서 방문자 신분이었다.

제한적인 시간동안만 머물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컸었기에 특별히 공부를 해야겠다던가 무언가 뜻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 자체가 없었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갔었고 그로부터 1년6개월 후 나는 이민자의 신분으로 다시 캐나다에 오게 되었다.

신분(?)이 바뀐만큼 나의 생각에도 변화가 생겼다. 방문자로 살 때 처럼 쇼핑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 작은 관심이 이민국가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한인커뮤니티안의 어느 곳엔가 그야말로 작은 보탬이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할 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찾은 곳이 한인여성회 였다. 그리고 여성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Raising Sexually Healthy Children)' 프로젝트에 관한 소개를 받아 제 3기 부모지도자 훈련을 받게 되었다.

성적(成績)으로 승부하는 자녀를 키우기위해 이 땅에 이민왔는데...

20시간의 교육을 통해 나는 내 평생 처음 성(性)에 대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들을 수 있었다. 성의 개념, 가족의 기원을 통해 정립되어가는 성가치관, 성학대와 그것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 아이들의 성과 관련한 질문에 어떻게 대처할 지에 관한 이론과 실습, 모든 것들을 원할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대화방법인 I-message(나-전달법) 상황별 실습을 했다. 특히 I-message법칙을 사용하여 대화하는 방법은 자녀뿐 아니라 남편, 친구등과의 관계를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하는데 꼭 필요한 대화기술 이다.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받은 재교육이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내가 받았던 일방적인 주입식 학습방법과 달리 한가지 주제를 가지고 참가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서로 나누는 Workshop을 통해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 두 아들이 받았을 학습과정을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었다.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키우기'프로젝트는 특히 12살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꼭 참여해보길 권한다. 무제한으로 개방되어 있는 성에 관한 상당수의 왜곡된 정보들이 아무런 여과없이 아이들에게 흡수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많은걸 알고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막연한 생각으로 대처하기엔 이 땅의 문화가 너무 다양할 뿐 아니라, 그 다양성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부모지도자 교육을 마친 후 얼마전 여성회 주관으로 다시 부모 워크숍이 열렸고, 이번엔 진행자로서, 참여하신 어머니들에게 내가 받은 교육내용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었다. 적은 수였지만 참가자 모두가 뜨거운 호응으로 워크숍 내내 솔직한 자기경험과 생각들을 나누어 주셨고 그렇게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동료들이 다시 배출되었다.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키우기'프로젝트와 그 동안 훈련받은 부모지도자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활발히 움직인다면 그 교육의 효과는 계속 될 것 같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민생활을 보람있게 시작했다는 자긍심이 나를 행복하게 했던 의미있는 교육이었다.

## 프로그램 이용자의 소리

정착 서비스 이용자

최석재

캐나다에 온 후 벌써 해가 바뀌었고, 지난 5월말에 왔으니 만으로도 이제 8개월이 넘었다. 아들의 공부와 새로운 인생관의 정립을 위해 무모함을 무릅쓰고 태평양을 건너 왔는데, 그간 아빠로서 자식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한물 갈 수 있는 사십이 넘은 나이에 말도 잘 안 통하는 곳에 정착을 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도 찾아야 하는 일은 매우 힘들고 성공의 확률 또한 높지 않다는 것을 몸소 많이 겪어 왔다. 현지화에 필요한 지식도 많이 배우고 많은 도전과 실패가 있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자책도 많이 하였으나 꾸준한 도전으로 마침내 올 1월부터 내가 하고픈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았고, 우리 가족의 토론 토 이민 생활도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 가족의 정착과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까지 우리 가족은 한인여성회로부터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고마움을 이번 지면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전하고자 한다.

토론토에 도착한지 약 2~3주 후 나는 우리 가족이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아내의 친구분 가족들로부터 캐나다 한인여성회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 떠나 오기 전부터 꼼꼼히 정착시 필요한 사항들을 목록으로 만들고, 캐나다 도착 후 하루에 한 가지씩 혹은 두 가지씩 아내 친구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필요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민 초기, 영어로 된 낯설고 복잡한 양식을 실수없이 정확히 작성하고, 첨부 자료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았다. 때론 당황스럽고, 원가 계속 개운치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몇일을 지냈다. 이럴 때 정말 구세주처럼 한인여성회를 알게 되었고, 내가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꼼꼼히 작성했다고 하는 나의 정착 준비 목록에 빠져 있던 사항들을 한인여성회의 도움과 지원으로 모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특히 정착 서비스의 전문가이신 심수영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 가족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정착에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점검해 주시고, 미결된 부분은 너무나도 친절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었다. 심 선생님의 서비스는 우리 가족에게 금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또 나아가 심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 뵙게 될 것 같다.

정착서비스와 더불어 나는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한인 여성회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였다. 담당자이신 오병천 선생님께서 마련하신 다양한 세미나에 여러 번 참석하였고, 그 중 “정부연계 취업프로그램 정보세미나”의 참석을 계기로 캐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다니게 되어, 캐나다 스타일의 이력서 작성법, 취업 인터뷰 준비, 직업 탐색 방법 등을 배우게 되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캐나다에서 상품으로서의 내 자신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다시 하게 되었고, 상품으로서의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어떠한 시장에 내어 놓아야 하는지를 여기 저기 부딪치며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과 직업을 찾을 수 있게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신 오병천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기부금 및 자원봉사 현황

2008년 10월 ~ 12월까지 많은 분들께서 자원봉사, 회원, 후원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하여 주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을 위하여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기록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UNDED BY: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toyenneté et Immigration Canada

캐나다 한인 여성회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27 Madison Ave.  
Toronto, ON M5R 2S2  
Tel: 416-340-1234  
Fax: 416-340-8114  
Website: www.kcwa.net  
E-mail: kcwa@kcwa.net

### 캐나다 한인 여성회 사명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1985년에 여성과 가족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에 의해 발족된 비영리 봉사 단체입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목표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통해 한국계 이민자와 지역사회 전반의 소외된 사람들이 폭력, 빈곤, 불평등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통합,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